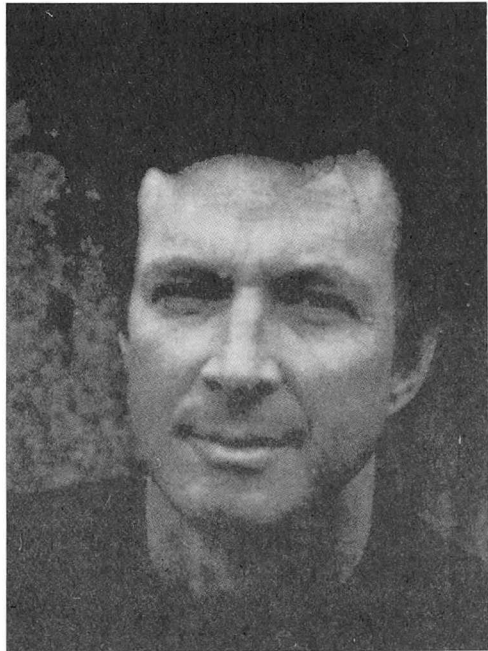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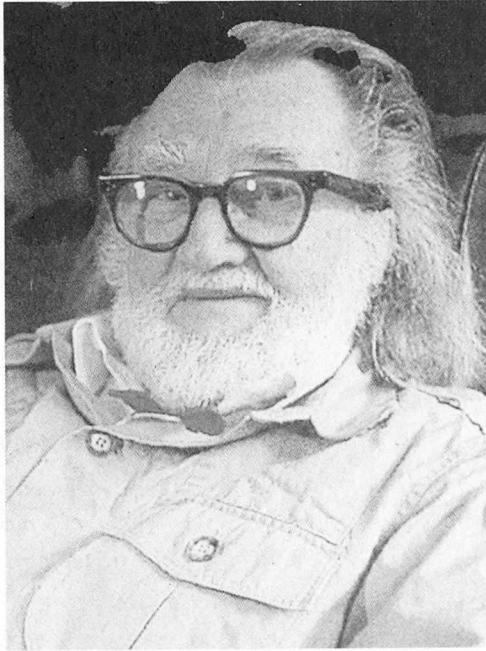


# 인기절정 마이클 크라이튼의 새 작품

## 《쥬라기 공원》의 속편 출간... 작품성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



《쥬라기 공원》의 속편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마이클 크라이튼.



67년 동안 쓴 일기를 책으로 펴낸 엘리스.



자신의 우울증 병력을 솔직히 고백해 화제를 모은 제이미슨 박사.

마이클 크라이튼(52)은 현대 대중문화계의 마인더스 손인가. 크라이튼이 최근 《쥬라기 공원》의 속편 《잃어버린 세계(Lost World)》(알프레드 크롭스 간)의 출간을 발표해 전세계 출판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쥬라기 공원》의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6년 뒤 코스타리카를 무대로 한 이 작품을 두고 벌써부터 영화계에서는 치열한 판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잃어버린 세계》는 내년중 27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며, 미국내에서만 초판본을 2백만부나 찍을 예정이다. 타임지 등 미국언론은 《잃어버린 세계》와 크라이튼을 특집기사로 다루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의 책이 출간전부터 이처럼 화제를 불러 모으기는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달러 박스로서 크라이튼의 이력은 화려하다. 지금까지 그가 발표한 작품은 24편. 이 중 7편을 자신이 직접 감독으로 나서 영화화했다. <떠오르는 태양>, <폭로>, <쥬라기 공원>, <공고>는 필립 카우프만, 스피버그 등이 감독을 맡아 대히트한 영화들이다. 그 밖에 크라이튼은 현재 미국 TV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의학드라마 <ER>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현재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 대표도 맡고 있고, 심심풀이로 컴퓨터 게임을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화가 제스퍼 존슨에 관한 책을 구상할 만큼 열렬한 미술애호가이며, 아카데미 영화상의 기술공헌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포브스》지에 따르면, 크라이튼의 재산은 2천2백만 달러. 한 작가가 거의 글만 써서 이만큼의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크라이튼의 소설책은 전세계적으로 약 1억권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의 신문기자 집안에서 태어난 크라이튼은 14살 때 《뉴욕타임스》에 여행기를 팔았을 정도로 일찍부터 글재주가 뛰어났다. 60년 작가의 꿈을 안고 하버드대학 영문과에 진학한 그는 고답적인 수업방식에 실망, 인류학으로 전공을 바꿔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그는 캠브리지 유학생회를 거쳐 하버드 의대에 입학했으며, 졸업후 의사생활을 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존 레인거란 가명으로 8편의 어드벤처 소설을 써서 돈을 벌었다. 제프리 허드슨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탐정소설은 에드거 상을 받기도 했다.

1971년 본명으로 처음 발표한 작품이 《안드로메다 스트레인》. 살인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이 대히트하면서 그는 전업작가로 나섰다.

크라이튼의 작품이 세계 각국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이유는 과학기술과 오락성을 적절히 혼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프락탈이론, 유클리드기하학, DNA 등 과학이론을 소설적으로 이용,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다.

알프레드 크롭스출판사의 저명한 편집자인 소니 메타는 “크라이튼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크라이튼의 대행인인 린 네이스 비트도 “그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관심의 영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스티븐 스피버그조차 크라이튼을 “내가 아는 한 상상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크라이튼 작품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선 평론가들은 인물의 성격창조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에 우려를 나타낸다. 특히 《잃어버린 세계》는 크라이튼으로선 처음으로 내놓은 속편이어서, 드디어 그의 문학적 상상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크라이튼은 이런 비판에 대해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타임》지 최근호와 인터뷰에서 “나는 바퀴이다. 문학계에서는 나를 연예인 취급하고, 연예계에서는 나를 너무 지적인 인간으로 경원시한

다. 나는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신세”라고 말했다.

## 세계에서 가장 긴 일기

전직 언론인이 평생에 걸쳐 쓴 일기책이 최근 미국에서 발간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에드워드 롱 엘리스(84)란 남자로, 1927년부터 67년동안 쓴 일기를 책으로 펴내 기네스북에 ‘세계 最長 일기작가’로 오르게 됐다. 이 책은 개인의 편력사 뿐만 아니라 20세기 미국의 역사, 사회상을 충실하게 담아 전문가들로부터 “다가올 세대들이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역사”로 극찬받고 있다. 엘리스는 오리지널 일기책을 사후 뉴욕대에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 역사가들은 일기책을 국보로 지정하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엘리스가 일기를 쓰게 된 것은 17세 때부터.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지루한 겨울방학을 조금 색다르게 보내기 위한 아이디어로 친구 두명과 일기 오래쓰기 시합을 했다. 친구들은 겨우 2,3개월 버텼으나 그는 평생 일기쓰기를 계속했다.

미주리대학 언론학과를 졸업한 그는 AP

통신을 거쳐 뉴욕 월드 통신사에서 기자로 일하게 된다. 여기에서 트루만 대통령 등 정치인부터 뒷골목 창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 기사를 쓰는 한편 일기 속에 기록했다.

공산주의자 색출열풍이 불던 당시 매카시 상원의원 청문회를 취재했던 그는 일기에 “매카시는 운동선수처럼 날씬한 엉덩이에 딱벌어진 어깨, 두꺼운 목을 지녔으며 입술은 길고 가늘다”고 꼼꼼히 적어놓았다.

그가 유일하게 일기쓰기를 중단한 때는 둘째 부인 루스의 사망 직후 2주간. 아내의 병세는 물론 사망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했던 그가 한동안 타이프라이터앞에 앉을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졌던 것이다.

엘리스는 현재 일기쓰기 외에도 공황기에 관한 역사책을 집필중이며 뉴욕시 사전 편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그의 일기는 평범한 시민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를 새삼 증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 우울증 권위자의 우울한 고백

우울증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케이 레드필드 제이미슨(49) 박사가 최근 자서전 《조용하지 않은 마음(An Unquiet Mind)》(알프레드 크롭스 간)에서 자신의 우울증 병력을 솔직히 고백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십대시절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왔으며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약물치료와 꾸준한 심리 상담치료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

저자는 주변으로부터 환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서전 출간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나는 평생 우울증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해왔다.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인 내가 이 병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제이미슨은 1993년 우울증과 창조력의 관계를 분석한 베스트셀러 《불에 그을려

(Touched With Fire)의 저자이기도 하다. <오애리>

## 프랑스에 봄 이는 문고 출판

한 사회의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 얼마나 활기 있고 건강한가는 문고판이 얼마나 활발히 출간되고 있는가에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총서들이 있다.

《GF》, 《포에에세》, 《르세즈》, 《128》, 《옴피끄》, 《도미노스》 등등... <르 리브르 드 포세> 문고는 8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그중 하나인 ‘고전 Classique’ 총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이 총서는 아홉권의 책을 새롭게 출간했다. 《오늘의 고전》, 《책들》, 《고전》, 《새로운 접근》, 《극장》, 《고딕문자》, 《철학의 고전》, 《고전 장서》, 《라포쇼 테크》가 바로 그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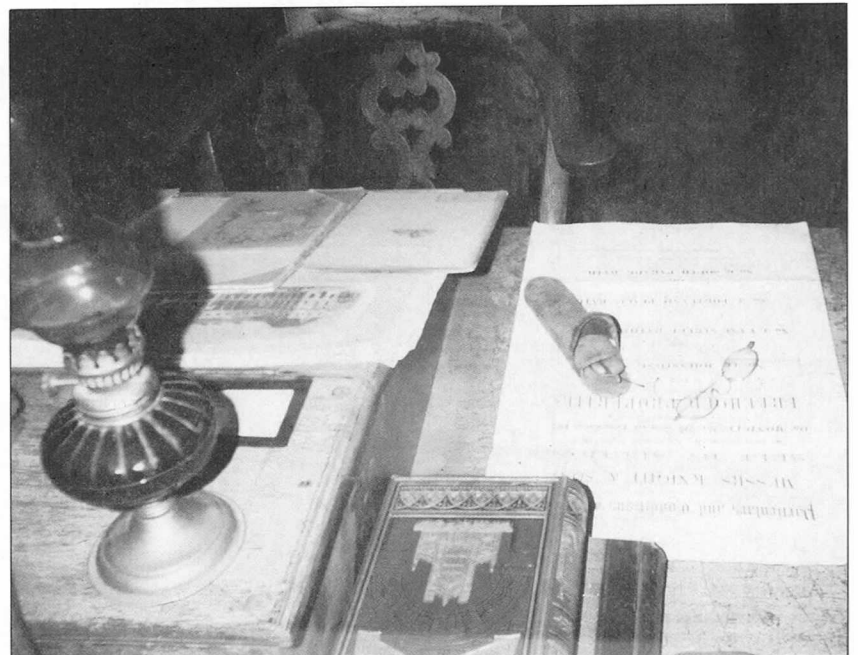
편집장인 도미니크 구는 이 총서가 성공한 원인을 편집진의 노고에 돌렸다.

“《오늘날의 고전》을 시작으로 《고딕문자》, 《라포쇼테크》를 지나 마지막으로 《철학의 고전》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매년 새롭고 진일보한 차원의 책들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2년전부터 지난 30년 동안 출간해온 ‘고전’ 총서를 재편집하는 일에 착수하고 있지요.”

알렉상드르 뒤마의 《삼총사》가 900페이지에 35프랑의 가격으로 재편집되어 출간되었고, 9월에 볼테르의 《칸디드》가 20프랑대 가격에 상세한 각주를 달고 재출간됐다. 또한 조르주 상드의 《먼 늑》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역시 각각 12프랑과 50프랑의 가격으로 출간되었다.

최소의 가격으로 최대의 보급을 이루는 것 역시 독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다. 93년과 94년에 걸쳐 ‘고전’ 총서는 250종을 펴냈다. 가격도 23프랑에서 25프랑 사이로 내린(문고의 다른 책들은 최소한 30프랑 이상)의 매상을 올리고 있다.

최근 프랑스 출판사들의 문고판 전략은 미간행물 발행 쪽으로 정책적인 선회를 하



찰스 디킨스의 서재를 재현해 놓은 바스의 ‘책 박물관’.

고 있다. 프랑스 출판사들이 고전작품들을 도서관에서 생존시킬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한 경영관리와 믿을 수 있는 편집, 그리고 정당한 투자이다. <김택>

## 영국의 ‘책박물관’

영국의 바스(Bath)에는 자그마한 책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자체는 조그마하고 볼품 없지만 옛것을 간직하려는 영국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다.

이 박물관은 ‘조지 베인턴’이라는 책 제본소(Bindery)가 운영한다. 1894년에 설립된 이 제본소는 그 당시의 향취를 그대로 간직한 100년도 넘는 오래된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1977년 박물관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책제본 박물관이었다. 나중에 제인 오스틴, 찰스 디킨스 등 바스에 살았거나 방문했던 작가들의 전기사항과 초상화 등을 전시하게 되면서 책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제본술을 보여주는 방에는 염소가죽에 보석이나 그림으로 장식한 우아한 장정들과 1800년대에 사용했다는 제본기계 등을 전시해놓았다. 바스는 원래 로마식 목욕탕

(Bath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책제본술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 제본소의 주인이었던 베인턴은 바스의 뛰어난 장인 가운데 한명이었던 만큼 제본에 필요한 온갖 전시물들이 갖춰져 있다.

이 박물관에서 또하나 볼 만한 것은 찰스 디킨스의 서재이다. 약 1세기 전에 바스의 서적상이자 디킨스 작품 수집가였던 조지 그레고리가 수집한 가구들로 디킨스의 서재가 재현되어 있다. 이 서재는 루크 필즈(Luke Fildes)라는 화가가 디킨스가 임종하는 날에 그린 <빈 의자>라는 그림을 바탕으로 재현되었다.

이 박물관의 진짜 볼거리는 중고책방이다. 지하에는 중고책이, 이층에는 고서적 및 희귀본(antiquarian)이 진열되어 있다.

영국에는 중고책방이 많다. 유명한 도시나 관광지 어디를 가도 조금만 눈여겨 보면 그 지방의 중고책방 명단을 적어놓은 안내지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 주소와 영업시간, 책을 모으는 전공분야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 영국문화의 뿌리와 전통을 충분히 말해준다. 바스의 책박물관 역시 그런 점에서 영국의 전통을 담고 있다. <이동욱>